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4.(목) 11:00,
(지면) 2024. 1. 5.(금) 조간

배포 2024. 1. 4.(목) 06:00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돋보기]

“해외 물류 거점 지속 확대한다”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설립

-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 설립, 2024년 12월부터 단계적 개장 추진
- 해당 물량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하게 우선 배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캣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주)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2025년 7월에 저온화물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베트남 복합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항만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와 이번 베트남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영록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박치현 (044-200-5757)
담당 부서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	책임자	팀 장	여종민 (052-228-5417)
		담당자	대 리	성재호 (052-228-5416)



참고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 개요

- (사업명)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
- (사업범위 및 규모) 복합물류센터(상온, 냉동) 건립·운영 /
연간 4,320천pallet 처리 가능(상온 1,080천, 냉동 3,240천)
*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년짜 1공단 (면적) 부지 21,000m², 창고 11,860m²



물류센터 입지

- (총사업비) 188억원(지분 UPA 80%, KCTC VINA 20%)
- (사업방식) 울산항만공사(UPA)와 KCTC VINA*가 베트남에 합작법인인 K-UPA를 설립하여 복합물류센터 건립·운영
* (주)KCTC의 베트남 현지 법인
- (기간) 2023. 12월 ~ 2046. 2월(22년 2월)



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조감도